

## [찬양과 큐티 1]

#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 하나이다”

유지연 집사 / 1998 / 페이지 수: 1

이 찬양은 시편 42편 고라자손의 노래다. 민수기 16장을 보면-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도전하고 나섰던 사람들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고라는, 이스라엘 총회의 족장들 중 250인의 지지를 받고 아론의 후손으로만 제사장직을 제한했던 모세의 조치에 반발한다.

그들은 레위지파로서 회중에서 구별하여 여호와와 성막에서 봉사하게 했으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까지 했지만 제사를 집전할 수는 없었던 것이다.

그러자 모세는 고라와 그를 따르는 고라의 아들들에게 향로를 취하게 하고 그 향로에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서도록 했다. 물론 이 행위는 선택된 제사장들만이 할 수 있는 제사의식이었다.

이때 하나님의 영광이 온 회중에 나타났으며 땅이 갈라지면서 고라와 그의 자녀들은 산채로 땅에 묻히고 그 지지하던 2백50인도 그 향로의 불에 소멸되고 만다. 또 하나님은 그 이튿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영병을 보내셔서 1만4천7백 명이나 죽는 놀라운 사실들이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그러한 중에서도 고라의 세 아들인 아셀, 엘가나, 에비아삼은 죽지 않았으며 그들의 후손은 성전 문지기로, 또는 성전에서 찬송하는 자로 섬겼던 것이다.

이 시편 42편 “목마른 사슴” 찬양은 비록 조상들은 권위에 도전하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지만, 살아남아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고라 자손들의 애통한 마음이 실려 있다. 그래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다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한 고라자손들을 보고 사람들은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하니 눈물이 주야로 음식이 되었다고 울부짖는다.

우리는 주를 찾기에 갈급해 하고 있는가? 주는 바라는 것에 배고파하는가? 주를 구하기를 목말라 하고 있는가? 아마 우리는 너무나 목마르지 않고, 배고프지 않고도 잘 살아가고 있는지 모른다. 하나님 없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만으로도 먹고 살기에 충분하고 넉넉하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고라자손들의 말할 수 없는 갈급함처럼,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목마른 것 같이, 매일매일 주님으로 인하여 목마르고 갈급한 삶이되기를 기도한다.

<유지연 집사 / 윗셔뮤직 대표>

\* 출처 : QT신문